

중구소식

2004. 12월 vol.44



월미관광특구 캐릭터 '월디'

구정목표

세계로 웅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국제관광도시 건설

발행인 | 중구청장 김홍섭 편집 | 문화공보실
주 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청길 100(관동1가 9)
전 화 | 760-7122 팩 스 | 760-7129 월 간 | 비매품(통권 44호)



구마크



꽃 철쭉



새 갈매기



나무 해송

은 세상을 하얗게 덮은 흰 눈이 석양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난다.
세상이 이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비가 오건, 눈이 날리건 우리 모두 한 햇 동안 가파른 산을 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눈덮인 석양의 풍경 속에서 우리 중구는 치열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차이나타운 개발을 비롯, 지내온 한 해는 중구에게 너무도 바쁜, 그

렇지만 보람 넘치는 한 해였다. 중구는 올 해 역시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구민과 구 혼연일체가 돼 정상을 향해 질주했다. 물론, 이런 노력은 새해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겨울바람 만큼이나 가혹한 경기불황. 그 속에서도 중구민들에게 겨울 산세 소리가 캐럴처럼 들리고, 눈꽃을 입은 나뭇가지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나는 것은 열심히 달려왔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중구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얗게 덮인 눈 속에서
‘중구의 꿈’ 이 피어납니다

구정시책

-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실현
- 봉사과 나눔의 복지사회 실현
-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조성
-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관광도시 조성

주요기사 안 내

- 2005년 예산 993억600만 원 확정 2
- 가볼만한 곳 - 무의도 '호룡곡산' 8
- 차이나타운 개발 2단계 "시동" 3
- 포토구청 9
- 인천학생 6·25참전관 4
- 대체의학 - 자연치유력과 단식요법 10
- 인천시 중구청 펜싱부를 만나다 6
- 제131회 제2차 정례회 11
- 우리동네이야기 - 동인천동 댄스스포츠팀 7
- 중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보고 15

2005년 예산 993억600만 원 확정

**일반회계 852억, 특별회계 140억 등 지난해 비해 7.5% 늘려 편성
중구청 관계자 “예산 안전성 확보 위해 중앙, 시와 꾸준히 접촉할 터”**

인천시 중구가 새해 살림을 위해 993억6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888억1천600만 원보다 1백4억9천 900만 원이 늘어난 액수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52억8천2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40억3천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이 주 내용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2004년보다 44억5천600만 원 증가한 852억8천200만 원이며, 세목 별로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78억9천5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2.7%를 차지한다.

세외수입은 192억9천600만 원으로 22.6%를 차지, 본예산만을 놓고 볼 때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55.3%에 이른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책정되지 않았으며 조정교부금은 200억8천500만 원이 책정됐다. 또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170억600만 원을 받게 됐다.

세출 예산 편성 규모 가운데 일반 행정비는 올해보다 48억9천800만 원이 증가한 352억5천600만 원으로 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사회개발비는 55억5천900만 원이 늘어난 379억9천700만 원으로 44.5%를 차지하며 경제개발비는 101억7천만 원으로 11.9%를 기록했다. 민방위비는 3천600만 원이 감소한 3억3천

200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2천500만 원으로 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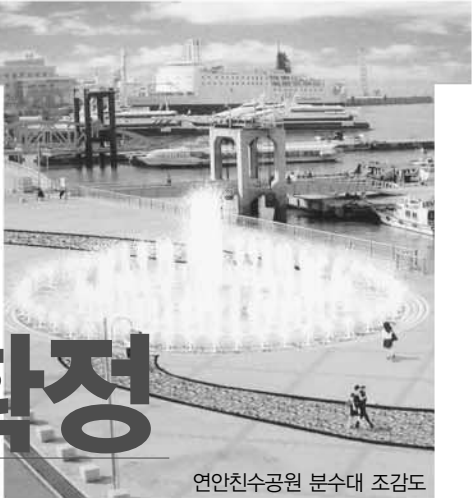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인천시민 생활의식조사’ 외 127개 사업에 211억8천400만 원을 책정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모두 67억2천100만 원을 마련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 61억1천500만 원보다 6억600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법정 경비적 성격의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나머지 동별 필요한 사업으로는 동청사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사업에 3억9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비 1억원, 기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했다.

중구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차이나 타운 거리와 도시미관 조성사업 등 관광특구와 연계하는 방안에 신경을 썼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에도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 인상을 상향 조정 및 공항 관련 과세물건 증가로 올해 대비 7.5% 늘려 편성한 반면, 국·시비 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11.5% 감소한 규모로 잡았다”며 “안정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시를 통한 지속적인 예산지원 요구와 투자사업유치 등 세원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안친수공원 분수대 조감도



중구의회 청사



문화관광정보센터 조감도

■ 2005년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2004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합 계	99,316,214	88,816,565	10,499,649(11.8)
일반회계	85,282,332	80,826,183	4,456,149(5.5)
특별회계	14,033,882	7,990,382	6,043,500(75.6)
기타특별회계	14,033,882	7,990,382	6,043,500(75.6)
의료보호기금	36,810	32,882	3,928(11.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318,000	175,500	142,500(81.1)
주차장	6,758,072	1,670,000	5,088,072(304.6)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6,921,000	6,112,000	809,000(13.2)



인천종합어시장 전면조감도

차 이 나 타 운 개발 2단계 “시동”

2006년까지 ‘차이나타운 동인천권역’
관광벨트화 완료하기로

관광객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
지역경제활성화 ‘큰 몫’ 할 듯



차이나타운 개발 2단계 사업이 오는 2006년까지 펼쳐진다. 중구는 2단계 개발사업을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공격적이고 의욕적으로 펼친다는 구상이다.

2단계 사업은 자장면박물관 건립을 비롯해 모두 7개 사업에 127억3천만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아직 확보하지 못한 77억3천만 원은 국·시의 보조를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차이나타운 권역을 지금의 청관거리에 한정하지 않고 확장하기로 했다. 즉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의 거리, 신포권역, 자유공원 주변 권역과 동인천권역을 관광벨트로 묶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방문객과 관광객 수는 현재 평일 3천여 명에서 2006년 이후엔 1만여

명으로, 주말·공휴일 1만2천여 명에서 2006년 이후 3만여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중구는 예상하고 있다.

차이나타운 개발 2단계 사업의 핵심은 대략 8가지 정도로 나뉘며 그 가운데 50%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는 사업들이다.

우선 지난 10월 시작한 ‘중저가 상품거리조성 도로기반 시설 정비’ 사업은 현재 유관기관(기업) 지중화를 시행중이다. 내년엔 마무리되는 이 사업엔 시비와 구비가 각각 9억 원씩 들어간다.

‘중국 사대기서(삼국지) 상징 조형물(벽화 등)’ 제작 설치하는 현상공모를 통해 곧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시비 국비 각 2억5천만 원씩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문화관광정보센터 전시시설물’ 제작은 센터 건립과 병행되는 사업이다. 지금

까지 구비만 6억 원을 투입했다. 문화관광정보센터는 중구 항동 1가 1의2 월미자동차공업사 부지 720평에 조성된다. 연면적 876평에 지하1층, 지상5층(5층은 옥탑)으로 지어진다. 1층은 관광정보센터, 기념품판매점, 주차장(34면-대형3면, 소형31면)으로 꾸며진다. 2층은 차이나타운홍보관 등 전시장, 투자유치 상담실이, 3층은 중국 우호도시 교류관이, 4층은 공연장·분장실·연습실이 각각 들어선다.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도 내년까지 완전 조성된다. 시비와 국비를 합해 모두 30억 원이 들어가는 작지 않은 사업이다.

구는 내년부터 자장면 박물관 건립, 화교사당주변 야외문화공간 조성, 한·중 특산물 판매점 설치, 중국풍 리모델링 시설물 제작 설치 등에도 67억8천만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풍 상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데, 중구는 이 사업을 위해 차이나타운 내 200여 곳에 대해 역사성 있는 중국풍 건축물을 복원하거나 보존하고, 기존 상가나 노후 건축물은 신·개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 8월 중국풍상가를 착공했으며 중구는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중이다.

중구 관계자는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한·중 양국의 문화향유와 이해를 증진하고 수도권 관광명소화를 통한 국제적 관광지로 부각을 기대한다”며 “차이나타운 상권 활성화 및 중국교역의 거점 지역화와 신포권역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학생 6·25 참전관



전쟁은 이제 그만,

평화의 그날을 향해

추모·기억·추억의 벽 통해 6·25참전 인천학생 기려



‘하늘 땅처럼 오래 이어갈 겨레는 끝 없는 충성을 나라에 다 하고, 자손 만대를 오래 이어갈 집안은 먼저 아버지께 효도를 다 하고, 여기 불어 오가는 바닷바람이여 늘 이 뜻을 모두에게 전하라.’

지난 18일 개관한 ‘인천학생 6.25참전관’(중구 신포동 15의5) 입구에 쓰여진 문구다. 인천학생 6·25참전관은 이규원 씨(이규원치과 원장)가 사재를 털어 만든 ‘사설전시관’이다. 그가 굳이 사재를 털

어 사설전시관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쟁 통 어린나이에 연필이 아닌 총자루를 쥐어야 했던 인천학생의 용대를 기리기 위해서다. 그의 부친 이경종씨도 그 가운데 한 명이였다.

신포시장 쪽 버스정류장 플라자약국 3층에 위치한 인천학생 6·25참전관은 추모의 벽, 기억의 벽, 추억의 벽 등 크게 세 개의 코너로 마련돼 있다.

‘추모의 벽’은 참전관을 들어서자마자 정면으로 보이는 앞쪽에 마련됐다. 이곳은 국가와 고향, 인천을 위해 참전해 전사한 208명 인천 학생들을 추모하는 벽이다. 추모의 벽은 인천의 어느 한 곳에도 이들을 위한 위령비를 대신해, 전쟁 때 전사한 208명 녀의 명

복을 빌어주고 있다.

‘기억의 벽’은 참전관을 들어서서 왼쪽에 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인천 학생들을 이끌었던 형들의 업적을 기리는 코너이다. 당시 드문 학생이었지만 이계송 연대장과 정대연 부대장은 3천 여 인천 학도의용연대를 이끌고 남하하던 중, 대구에서 육군본부 인사국장 황현천 준장의 육군 중의 계급장 부여를 제의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사병으로 입대해 제대했다고 한다.

‘추억의 벽’은 참전관에 들어서 오른쪽에 설치됐다. 이 곳 코너에선 참전했다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온 인천학생들의 추억을 소개하고 있다. 인천동산중학교 1학년 재학중이던 14살 때 입대한 김기철, 인천상업중학교 2학년 재학중이던 14세 때 부산까지 남하한 허상과 이재덕 등이 곳엔 다행히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참전관 한 칸에는 비행기, 탱크 등 이규원씨가 직접 제작한 플라스틱 모형제품들이 진열돼 있어 6·25전쟁의 상흔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규원씨는 “참전관은 지난 96년부터 올해까지 9년 간 인천학생 6·25 참전사 편찬위원회가 발굴·수집한 자료를 보관 연구 전시하는 공간”이라며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가했으면서도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참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충효를 알리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관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료는 없다. 문의 (032)772-1218



싸리재

요즘은 애관극장 앞이라 해야 통하는 경동사거리를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싸리재라 불렀고 상업은행 앞이 싸리재고개였다. 그림은 내동에서 바라본 듯한 싸리재의 1910년대 풍경으로 짐작되며 답동성당 위치가 다소 이상하지만 일본식 2층건물이 옥식상점(玉植商店)인 것은 확실하다.

당시 경동과출소에서 배다리에 이르는 싸리재는 일찌기 개화한 내동 상계에 연달아 성장하기 시작했다. 조그만 우리 가게들이 웅기종기 들어선 가운데에 잡화와 화장품을 도매하던 일인의 옥식상점이 우뚝 서 있던 거리의 모습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상징이기도 했다.

싸리재는 30년대에 송의동로터리를 지나는 경인국도가 준공되기까지 상가로서 보다는 서울로 올라가는 간선도로의 시발점으로 알려져 있었다. 1900년에 철도가 개통하기 전에는 제물포에 상륙한 사람이 서울에 가려면 배로 한강을 올라가거나 말 아니면 가마를 타고 싸리재 길을 나서야 했던 것이다.

그러한 싸리재가 인천의 변화화로 자라난 내동과 신포동에 밀려 향토 내음이 물씬 나는 그 이름을 잃어가는 중에 인천은 무심하게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구의 옛 풍경



인천공항 ‘제트날개’로 비상

운항과 여객, 화물처리 등 꾸준한 증가세 보여
11월 현재, 전년 같은 기간 비해 9~11% 늘어

인천국제공항이 ‘제트날개’를 달았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과 여객, 화물처리 등 운영실적이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은 1만2천 619회(하루 평균 421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로 늘었다.

여객처리는 2백5만1천650명(하루 평균 6만8천33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1.1% 늘었으며 항공화물 처리도 18만7천952t(하루 평균 6천265t)으로 10.7% 증가했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운영실적이 이 상태로 호조를 보일 경우 올 항공기 운항은 14만9천여회(하루 평균 408회), 여객은 2천400만명, 화물 2백13만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4.6%, 21.8%, 1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사별 점유율은 대한항공의 운항과 여객, 화물처리가 여전히 가장 많았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운항 35.1%, 여객 38.8%, 화물운송은 47.1%를 각각 차지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운항 24.4%, 여객 26.6%, 화물운송은 20%였다.

외항사는 항공기 운항과 여객처리에서 일본항공이 각각 3.5%, 5.3%를 차지



해 가장 많았으며 화물운송은 플라항공이 4.7%로 제일 높았다.

지역별 항공기 운항은 중국이 26.2%로 가장 많았으며 여객처리는 일본이 27.4%, 화물운송은 미주가 29.4%를 차지했다.

11월 항공기 운항 지연은 263건, 결항

15건, 회항은 2건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공항의 항공기 탑승률은 74%로 10월보다 0.5%늘었으며 내·외국인의 비율은 내국인이 62.1%, 외국인이 37.9%를 차지했고 여객 환승률은 11.3%, 화물환적률은 45.4%다.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는 “동북아 최고

의 국제허브공항이란 이름에 걸맞게 공항이 하루 하루 다르게 물류가 늘어나고 있고 여객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인천국제공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전 직원이 협심해 뚝심한 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 운영개선 16개 우수사례 발표

‘특수기종 항공기에 이용 가능한 캐빈플로워 구조개선’ 최우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운영품질 개선에 대한 우수사례 16개를 접수해 평가한 결과 탑승교 유지보수 용역을 맡고 있는 신홍식 소장의 ‘특수기종 항공기에 접현 가능한 탑승교 캐빈 플로워 구조 개선’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항공사는 “신 소장이 발표한 사례는 항공기 기종에 따라 탑승교의 접현이 달라져 항공기의 안테나가 손상될 우려가 높고 또한 접현 높이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감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탑승교 플로워의 구조를 개선, 실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수상은 ‘최고 항장실 달성에 대한 혁신 노력’을 제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축처 유경선 과장,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한 공항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발표한 삼성 에버랜드(주) 유희철씨가 각각 차지했다.

장려상은 ‘전력 감시제어시스템 운영개선’에 관한 사례 연구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력처 손춘호씨, ‘여객 위탁수하물 미송방지로 고객서비스 품질향상’의 포스콘·포철산기 컨소시엄의 김응석씨, ‘고객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캠페인 전개’의 (주)유니에스 변은숙씨 등 3명에게 돌아갔다.

공항공사는 오는 31일 종무식에서 최우수상은 200만원, 우수상 150원, 장려상은 5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운영품질 개선에 관한 우수사례 발표는 인천공항 운영과 관련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사례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우수 사례집을 모아 책으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항에 IT 전시관 들어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IT제품 전시관’이 들어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대표적인 MP3 제작업체인 아이리버와 공동으로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12번 게이트 45평 규모의 IT전시관을 설치, 지난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인천공항 IRIVER FIRST CLASS’로 명명된 IT전시관은 공항 이용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나라 IT산업에 대한 대외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마련됐다.

이곳에는 MP3 플레이어, 비디오 플레이어, 전자사전 등 최신 IT 제품이 전시되며 공항 이용객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전시제품을 현장감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항공기의 퍼스트클래스 좌석이 설치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에는 이번에 설치된 IT 전시관 외에 전통문화 체험관, 환승투어프로그램과 같이 공항 이용객이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며 “이제 공항은 단순한 운송기지의 차원을 넘어 쇼핑, 휴식, 오락 등을 망라하는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더욱 흥미롭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 끝이 내뿜는 '불굴의 투혼'

인천시 중구청

펜싱부



각종 국내외 대회서 상 휩쓸며 중구 명예 드높혀 대부분 주부 선수들, '오직 연습' 이 수상 비결

“얹! 여자 기사도의 맛을 보라.”

중구청 펜싱부는 중구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다. 중구 펜싱부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중구민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한국 펜싱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중구 펜싱부는 정 훈 감독만 빼놓고 모두 여자로, 특히 주부선수들로 구성됐다. 이들 선수들의 주종목은 '에페'와 '사브르'가 아닌 '플러레'이다. 플러레는 에페와 함께 검 끝으로 찌르는 것만을 유효로 하며, 가드가 달린 유연한 검을 사용한다. 얼굴과 머리·사지를 제외한 몸통만이 공격유효면이며, 공격동작이 빠른 쪽이 반격의 권리를 얻는 것이 특징이다. 1955년부터는 전기장치를 한 검 끝이 유효면을 적중할 경우 빨간불이 켜지고, 무효면에 닿으면 흰불이 켜지는 전자심판기를 사용하고 있다. 유일하게 여자종목이 있다

팀 주장인 신성자 선수는 86년 아시안 게임에서 준우승을 거둬준 것을 비롯해 88년 서울올림픽 출전한 국제경력을 갖고 있다. 국내 대회는 '제8회 용곡배전국여자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했고 '제33회 회장배 전국남녀개인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마크했다.

장미경 선수는 '제33회 회장배 전국남녀개인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했으며 이태희 선수와 함께 98년 '이태리 꼬모 A급 대회'와 '방콕 아시안 게임'에 함께 출전해 단체전 우승을 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태희 선수의 경우 '이태리 꼬모 A급 대회'서 개인 우승을 했다.

단체로 출전했을 우승한 경우는 '제42회 전국남녀단체종별펜싱선수권대회'와 '제44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다.

올해 인천정보산업고를 졸업한 막내이자 중구 펜싱부의 꿈나무 박혜진 선수는 '제6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했다.

이들 선수들이 이처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지난 95년부터 감독을 맡고 있는 정 훈씨와 함께 매일 오전 10시 12시, 오후 2시30분 5시까지 훈련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훈련장소는 시립운동장 내 체육회관 펜싱연습장으로 이 시간이면 이곳은 검 끝에서 튀는 불꽃들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정 훈 감독은 “선수들이 워낙 열성적인데다 지기 싫어하는 성격들이어서 오히려 내가 배운다”며 “주부선수들이어서 체력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편”이라며 활짝 웃는다.

중구 펜싱부는 지난 90년 창단해 올해로 꼭 15주년을 맞았다.



우리동네 이야기 **동인천동 댄스스포츠팀**

"자 다함께 쿵, 쿵, 슬로우"



"슬로, 슬로, 쿵 쿵."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동인천동사무소 2층은 활기가 넘쳐난다. 이 때는 '동인천동 댄스스포츠팀' 중구 실버동아레이 신나게 댄스를 배우는 시간이다. 53~75세에 이르는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지만 이들의 스텝과 율동에선 20대 젊은이들 못지 않은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 마치 영화 '웰 위 댄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템포가 빠른 차차차, 경쾌한 자이브, 우아한 룸바에 이르기까지 춤의 종류도 여간 다채로운 게 아니다. 회원들이 춤을 추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을 얻는다. 즐거운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니 엔도르핀이 마구 솟아나고 체력도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자칫 무력해지기 쉬운 노년의 삶에 팔팔한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모티브로 작용하기도 한다. 춤을 통한 대화를 나누며 회원들은 서로 간 각별한 우정을 쌓는다.

동인천동 댄스스포츠팀은 중구에서 인기도 꽤 높은 편이다. 동아리

수준의 아마추어 실력이 아닌 프로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그들을 초청하는 행사도 적지 않다.

지난 5월엔 중구 노인회관에서 초청을 했고, 8월엔 하나개 해수욕장 '무의춤축제' 무대에 섰다. 이어 9월엔 남동구 소재 양로원인 '초도원'을 찾아 신나는 공연과 함께 목욕봉사와 치매방지를 위한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10월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댄스시연, 노인의 날 기념 댄스시연 등 댄스스포츠팀의 인기는 가히 하늘을 찌를 만큼 치솟는 중이다.

지난 10월에는 여성의 광장이 주최한 제1회 주민자치센터 군·구 대항 동아리경연대회에서 중구 대표로 나가 장려상을 수상해 중구와 동인천동의 이름을 날린 바 있다.

동인천동 댄스스포츠팀은 오늘도 세상만사 모든 시름을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스텝을 밟는다.



황연숙 동인천동 댄스스포츠팀 회장 인터뷰

"건강한 몸, 여유넘치는 마음 닦아요"

3년 전부터 동아리 활동, 인천토박이 공무원 출신



"회원들이 모이면 한시라도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동인천동 댄스스포츠팀 황연숙(63·중구 전동) 회장은 말문 대신 웃음부터 터뜨리며 자랑하기에 바쁘다.

"건강은 기본이구요. 즐겁고 젊어지고,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한 마디로 생활의 활력이 넘친다고나 할까요?"

황 회장이 댄스스포츠팀과 인연이 닿은 것은 동아리가 만들어진 2001년이다. 그는 2기 때 총무를 맡아 활동하는 등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3기 때도 총무를 맡았으며 얼마전부터 회장에 취임해 35명 회원을 이끌고 있다.

"춤을 추면 관절염을 비롯해 노인성 질병이 모두 없어집니다. 저도 몸 이곳 저곳이 쑤시곤 했는데 댄스를 배운 뒤부터 쫓은 듯이 낫았지요."

그는 춤은 특히, 온 몸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신운동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몸 전체가 유연해 진다는 것.

"아무래도 서로 몸을 부딪치며 스킨십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친근해 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남자 회원들과 하는 것은 아직 부자연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 회원 가운데 남자 회원은 세 명 뿐이다. 대부분 여성들인 회원들은 스킨십을 통해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남자회원들 앞에선 웬지 부끄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천 송현동에서 태어난 인천토박이 황 회장은 송현초, 남인천여중, 인천여상을 졸업한 뒤 철도청에서 18년 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 공직 생활을 마친 뒤에는 새마을지도자, 선거관리위원회 등 여러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해 오기도 했다.



레저여행 무의도 '호룡곡산'

'겨울산' 서 바라본 '황해'엔 아름다운 섬들이

30여분 코스, 겨울풍경속 가족이 함께 등반하기에 최고
등산로 곳곳에 나무군락 · 희귀식물, 맑은 날은 백령도까지 보여

지난 15일 오전 10시15분 무의도 호룡곡산 입구. 호룡곡산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 가운데 한 곳인 '호룡곡산 산림욕장' 입구에 섰다. 국사봉 쪽에서부터 오는 등산객 한 무리가 구름다리를 건너오고 있었다. 하늘은 우울한 얼굴로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만 같다. 하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변화를 두려워할 리 없다. 비와 눈은 오히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좋은 친구일 수도 있다.

중구소식 취재팀은 10시20분 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정상까지 1.4km 라고 표지에 쓰여 있다. 정상까지는 보통 30분 정도 걸린다고 무의도 사람들이 말해줬다.

두 세 명 정도가 지날 수 있는 등산로를 따라 15여 분 오르다 보니 투둑 투둑 하는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무의도를 비롯해 무의도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자 선착장

등이 한 눈에 들어왔다. 생각보다는 등산로가 만만치 않게 느껴졌다. 숨도 돌릴 겸 잠깐 경치를 구경하다 다시 갈 길을 재촉했다.

등산로는 여러가지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 대나무 숲처럼 가지만 위로 뻗은 나무군락 모습, 바삭 오그라든 채 처연히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빛바랜 나뭇잎들 등등.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나무들은 원시림처럼 무성했고, 희귀식물도 꽃을 피워냈을 호룡곡산이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중구소식 취재팀이 정상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55분. 정상 바위에 오르기 전 바로 옆에는 '삼각기준점'에 세워져 있다. 전국 곳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1만6천 곳에 설치한 것으로 지도제작이나 지적측량, 건설공사, 시설물 설치 등에 사용하는 기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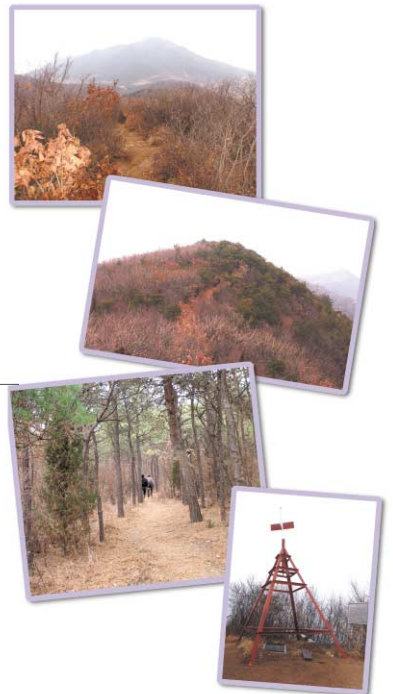
해발 245.56m의 정상에선 초겨울 바람소

리가 스산하게 들려왔다. 멀리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소리도 귓전을 맴돈다. 빗방울이 가늘긴 했지만 마른 나뭇잎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기도 했다.

흐린 날이었지만 위에서 내려다 보니 영화를 찍었던 실미도가 눈에 들어온다. 호룡곡산 정상은 맑은 날이면 백령도, 대청도, 덕적도까지 볼 수 있는 곳이다.

호룡곡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황해'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미동조차 없다. 너무도 고요한 서해 위로 문득 지나온 200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활기찬 새해 맞게 하소서. 바다를 향해 눈을 감는다.

11시15분 취재팀이 하산을 시작하자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호룡곡산에서 내려다 본 소무의도



영종신도시 '백운면옥'

영종산 고기와 야채,
넉넉하게 맛 볼 수 있는 곳



시골의 '맛'과 '인심'이 여기에

"말만 잘하면 그냥도 드립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이라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이다. 물론, 맛이 좋거나 분위기가 끝내주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 고유의 넉넉한 인심과 친절로 언제나 사람이 북적대는 곳이 있으니... '백운면옥' (중구 운서동 2802의2)이 바로 그 곳이다.

이 집 대표 김미라씨는 한 마디로 '큰 손'이다. 김씨는 손님이 고기가 모자란다고 하면 한 움큼을 더 집어다 준다. 고기는 물론, 밑반찬까지도 듬뿍 듬뿍 내와서 마음까지 배부르게 만든다.

모듬구이, 한우꽃등심, 갈비, 차돌박이, 갈비살, 오겹살, 향정살 등 고기요리 전문점인 백운면옥의 대표 음식은 '쌈밥'이다. 구운 생5겹살에 독배기 된장, 썩갠 미나리, 상추를 싸 먹는 쌈밥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맛이 끝내준다. 잘 양념한 독배기 된장 맛도 맛있지만, 영종산 재료만을 골라쓰는데다 양념은 주인 김씨의 고향인 시골에서 직접 갖다 음식을 만들기 때문이다.

인심이 좋다보니 밑반찬을 커다란 테이블이 모자랄 정도로 내놓는다. 물김치나 두부조림 등 반찬이 워낙 맛있다 보니 포장해 달라는 사람까지 부지기수이기도 하다.

"싸 달라는 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돈은 받을 수 없고, 그냥 드리지요 뭐. 저희 집을 찾는 분들은 손님이 아닌 저희 식구나 다름없거든요."

얼마 전에는 인근 우체국, 동사무소에서 김치를 담가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백운면옥의 맛은 자타가 공인하는 솜씨를 자랑한다.

백운면옥의 구수한 맛과 시골 인심 때문에 단체손님이 많이 찾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신도시 조성 초기인 2002년 초 문을 연 이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 사람들은 언제나 회식자리로 백운면옥을 첫 순위로 꼽곤 한다. 면을 사다 쓰지 않고 직접 뽑아 만드는 냉면 맛도 독특하다. 주인 김씨는 앞서 지난 88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서 갈비집을 운영한 바 있다.



백운면옥
752-2233~4



제9회 인천·경기환경대상 우수기관 수상

우리구는 21일 파라다이스호텔 사파이어홀 8층에서 거행된 제9회 인천·경기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개최

우리구는 1일 구청 상황실에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광목부구청장 주재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

우리구는 13일 구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창립총회

우리구는 20일 구청회의실에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따른 위원 위촉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우리구는 13일 구청회의실에서 김홍섭청장을 비롯한 각 동 주민자치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 대체의학 ★

자연치유력과 단식요법

우리 인체는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자연치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자연치유력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연치유력이 높은 인체는 질병을 이겨낼 수 있고 자연치유력이 낮은 인체는 질병에게 점령 당하고 마는 것이다.

자연치유력을 높이려면 먼저 인체 내의 산화물질인 노폐물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인 곳이 오장육부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에 끼어있는 숙변이다. 숙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적게는 7kg에 서 많은 사람은 15kg가 지 들어 있다고 한다.

숙변이 계속해서 장을 막은 채 독가스를 발생시켜 장부를 비롯한 혈액등 인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성인병 등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인체의 대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단식요법이다. 단식요법은 병든 사람은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강건한 정신과 육체의 힘을 증진시켜 준다.

이 지구상에는 생물의 종류가 약 40여만 종이나 된다고 한다. 모든 동물은 병이 나면 본능적으로 굶는데 인간만이 그렇지 않다. 동물에게는 본능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들이 병이 나면 굶는다는 것은 그들이 본능적으로 병에 대한 단식의 효과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개나 고양이가 병이 났을 때 취하는 행동을 보면 양지 바른 곳에서 땅에 배를 바삭 붙이고 굶으면서 꼼짝도 않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태양에너지와 공기만을 흡입하며 단식,안정 등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단식요법이 자연의 섭리에 따른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도 감기몸살이나 심한 병에 걸리면 입맛이 떨어지고 온몸이 쑤시고 꼼짝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인체의 자율신경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생명인자가 몸에 비축되어 있던 에너지를 사용하여 질병과 일대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소화흡수 배설하는 것에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므로 질병과의 전투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현대인은 항상 오염된 공기, 농약, 유해색소, 살충제, 제초제, 유해식품첨가물 등 독소 속에서 살고 있으며 영양과다로 인한 비만 등으로 인해 인체는 병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1년에 한번 정도는 봄맞이대청소 하듯이 인체도 휴식을 통해 묵은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대청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기게나 자동차도 청소를 해 주지 않으면 고장을 일으킨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음식물을 넣어 주므로 오장육부가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런 결과 인체에 끼어 있는 노폐물을 제거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어 점점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병에 걸린 신체에 영양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은 질병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병을 키우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병든 신체에는 영양공급을 중단하고 질병 퇴치를 위한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단식기간은 인체의 휴양을 통해 질병을 대청소하는 기간이다.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므로 현대의 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만성병이나 난치병을 치유할 있는 것이다.

■자료제공 : 심원기(자연치유요법 전문가)

이 달 의 수 산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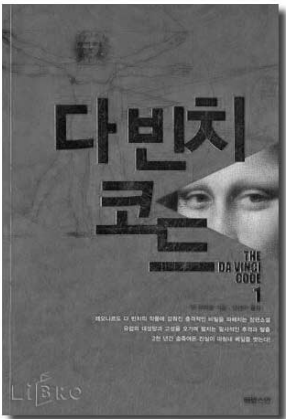
고등어



등푸른 생선의 대표적인 고등어는 뇌에 좋은 DHA가 풍부하고 “바다의 보리”라고 불릴만큼 영양가가 높으나 가격은 저렴해서 서민과 매우 친숙한 생선이다. 고등어 구이, 고등어 자반, 고등어 조림 등으로 전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싱싱한 회로도 맛을 볼수 있다.

■ 추천 도서 ■ ■ ■ ■ ■

다빈치코드



2003년 3월 첫 출간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약 7백만 부가 판매된 화제의 책, 『다 빈치 코드』가 드디어 국내 번역 출간된다. ‘메가 베스트셀러’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이 책의 전세계적인 인기는 가히 ‘열병’에 가깝다. 책에서 언급한 내용을 추적한 각종 TV 프로그램, 아

마존 독자서평 3천 개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전세계 독자들은 다 빈치 그림에 숨겨진 고대역사의 비밀을 해독하느라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USA Today’지는 『다 빈치 코드』가 유일하게 『해리 포터』시리즈의 판매량을 앞질렀다고 보도했고, ABC 방송사는 뉴스 스페셜에서 <예수, 마리아 그리고 다 빈치>라는 제목으로 책에서 언급한 내용을 크게 다루었다.

덴브라운/ 양선아 옮김 / 정가 : 7800원

이달의 영어회화표현

It's not easy for me.

저에게는 쉽지 않아요.

춤과 음악은 제천의식(祭天儀式)에서 시작된 원시종합예술(ballad dance)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 흥겨운 장단이 흘러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흔들게 되니 춤은 인류의 피 속에 흐르는 본능이다.

A : This is my favorite tune. Do you want to dance?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춤추실까요?

B : No. That's very difficult for me. I'm a terrible dancer.
아닙니다. 저한테는 매우 어려운데요. 전 정말 춤출 줄 몰라요.

A : Why do you say that? Dancing is very easy. It's just like walking.
그런 말씀 마세요. 춤추는 건 아주 쉬워요.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B : It's not easy for me. You see, I have two left feet.
저에게는 쉽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운동신경이 둔하거든요.

■자료제공 : T.I.G program 개발진(514-0038)

이달의 중국어회화표현

见到你很高兴

jian dao ni hen gao xing

만나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贵姓? (귀이성?)

이것은 상대방의 성씨를 예절 바르게 묻는 방식이다. 대답할 때에는 我姓(위성)··· 또는 我姓···, 叫(씨)이오··· 라고 말해야지 我贵姓(위귀이성)··· 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제3자의 성씨를 물을 때에는 他姓什么?(타성선마?)라고 해야하며, 他贵姓?(타귀이성) 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A: 见到你很高兴
jian dao ni hen gao xing
만나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您 贵 姓?
nin gui xing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B: 我 姓 金
wo xing jin
저의 성은 김입니다.
我 自我 介绍 一下?
wo zi wo jie shao yi xia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ore Tips》

• 你 好
ni hao (니 하오)
이것은 중국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인사말이다. 시간 장소 신분에 구별없이 다 쓸수 있다. 상대방의 대답도 역시 你好이다.

이달의 일본어회화표현

出会(であ)い

만남

일본에는 남녀의 만남을 도와주는 중개업자가 많이 있다. 이것은 요즘 한국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중 조건과 적성이 맞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회사들이다. 또 파티를 기획해 만남의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다. 남녀가 맞선을 보는 투어를 기획하는 회사도 있다. 어떤 방종국에서는 시골이나 섬에 사는 남자와 만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현지 남자 수에 맞춰 모집한 뒤 직접 현지를 방문하도록 추천하고 며칠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낸 뒤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고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佐藤：私の親(りょうしん)は虚(げき)てき(ぎてき)な巡(めぐ)り(あ)い(あ)をしたそうです?
사토 : 저의 부모님은 극적으로 이뤄진 만남이래요.
李：どのように出会(であ)ったのですか?
이 : 어떤 식으로 만났는데요?
佐藤：そもそもきっかけはお見合(みあ)いの相(あ)い(いて)を間違(まちが)ち(ち)えて?
사토 : 맨 처음 계기는 맞선 보는 상대를 잘못 알고.
李：それで? 이 : 그래서요?
佐藤：父(ちち)か母(はは)に一目(ひとめ)惚(ぼ)れしたらしいんです?
사토 :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한눈에 반했다고 해요.
李：おもしろい因縁(いんねん)ですね
이 : 재미있는 인연이네요.

《More Tips》

• そもそも : 맨 처음, 원래부터
• お見合(みあ)い : 선
• 一目(ひとめ)惚(ぼ)れ : 한눈에 반함
• きっかけ : 계기
• 因縁(いんねん) : 인연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1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제1차 본회의(11. 25)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중구청장의 시정 연설의 건과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이 있었으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동의 가결되었다.

또한, 제2차 본회의(12. 16)에서는 각 특위에서 심의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및 예산안을 원안 및 수정의결하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감사기간 : 2004. 11. 26 ~ 12. 3(8일간)
- 구 성 : 위원장 -임관만, 간사 -이태호, 의원 -6명
- 감사대상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청
 -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유출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10개 동사무소
- 자료요구 및 질의 : 88건
-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 통보 : 4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기간 : 2004. 12. 4 ~ 12. 15(12일간)
- 구 성 : 위원장 -이성출, 간사 -이태호, 위원 -6명
- 심의안건 :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퍼레이드 차량 내 · 외부 장식비 등 30건의 불요불급한 예산 18억3천6백만원을 삭감.
-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월미도 문화의 거리내 영상시설 및 무대보강공사비 2억3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야간조명 설치비로 2천1백만원을 증액

의 정 활 동

제8회 중구 문화예술인협회 회원전 참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김기성의회장은 12월 4일(토) 11:00 신포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8회 중구문화예술인협회 회원전시회에 참석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출품하신 예술인 여러분과 풍성한 회원전을 준비하신 오석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이번 회원전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발전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민족평화통일중구협의회

김홍섭중구청장 명예회장 추대식 참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장:김기성)의원들은 12월 6일(월) 18:30 중화루 연회장(3층)에서 민족평화통일중구협의회(회장:최무웅)주관으로 개최한 김홍섭중구청장 명예회장추대식에 참석하여 조국의 평화통일 발전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또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민족통일중구협의회가 남북 평화통일과 경제협력시대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제7회 중구청장배 볼링대회 참석



김기성 중구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일동은 12월 11일(일)11:00 크라운볼링장에서 개최한 제7회 중구청장배 볼링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하여 이번 대회가 생활체육 볼링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건강한 체력을 다지고 건전한 정신을 가다듬어 체육발전과 볼링동호인 저변확대는 물론 우리지역의 단합과 번영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제21기 노인대학 졸업식 참석



김기성 중구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2월 14(화) 14:00 중구노인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1기 노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졸업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중구 노인대학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질것을 부탁했다. 또 우리 대학이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교육문화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중 · 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창립1주년 기념식 참석



김기성 중구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2월 16(목) 13:00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중 · 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창립1주년기념식에 참석, 오늘 기념행사를 통해 아파트 주거문화가 한차원 높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중 · 동구아파트 입주자 연합회가 더욱 성숙된 공동체 문화를 창출하는 단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안내

자가주차장확보 촉진 및 이면도로내 원활한 교통소통등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코자 기존 담장이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한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의 일정액을 보조합니다.

■ 보조대상

- 주차시설설치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내 또는 인접지역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주상복합건물내에서 가게 및 창고등을 폐쇄하고 주차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주택 주소지에 등록된 차량대수 범위내에서 신규 또는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 보조금 : 80~150만원

■ 문의전화 : 중구청 교통행정과 (☎ 760-7557)

❖ 2004년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04. 12. 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기 : 2004. 12. 16 ~ 12. 31

■ 다양한 자동차세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관내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농·축·수협, 전국우체국
- 고지서없이 납부 : 인터넷지로납부(<http://www.giro.or.kr>)
한미은행 자동이체, 카드납부 (한미VISA카드에 한함)

■ 자동차세 관련 민원안내 : 중구청 세무과 시세팀 (☎ 760-7244)

❖ 2004.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2004. 2기 확정신고 안내

- 신고기한 : 2005. 1. 1 ~ 1. 25
- 신고대상 : 개인(일반,간이) 전체사업자, 법인 전체사업자

■ 2004. 2기 확정 신고 관련 당부 및 권장사항

-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를 하면 편리
 - 홈택스 가입으로 전자 신고 및 납부
 - 우편신고 및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성실 신고 당부
 - 부당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당환급 신청 시에 전산 조직 체계 등에 의해 검증되어 불리한 조치를 받게 됨

■ 전자(인터넷) 신고(www.hometax.go.kr) 혜택 및 신고방법 지원

- 한번 가입으로 신고,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전자신고 혜택 : 부가세 확정신고시 1만원 세액 공제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2만원 세액 공제
- 처음 전자신고를 하시는 사업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직접시연을 하는 등으로 전자 신고 방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음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신 후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편 또는 전자신고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의 : 인천세무서 세원관리1과 (☎ 770-0332~42 / 770-0352~63)

❖ 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진품인양 생산, 판매되는 가짜상품을 말합니다.

■ 식별요령

위조상품은 외관상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디자인, 칼라등이 다소 조잡합니다. 시계의 경우 뒷면에 고유번호가 없거나, 가방의 경우 바느질이 일정치 않으며, 본드냄새가 심하고 가죽이 부드럽지 않음 상표가 진품과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철자를 틀리게 하거나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있음

■ 위조상품 유통의 폐해

위조상품은 소비자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며,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기업의 신제품개발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위조상품은 국가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통상마찰과 대외 무역협상 등에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음과 같이 엄벌에 처합니다.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전화 : 위조상품신고센터·산업경제과 (☎ 760-7372 / FAX760-7369)

❖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에 따른 안내

2004년도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사업자(비직영차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지급기준액(100%)을 증감조정하여 지원함으로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간 : 2004. 06. 01 ~ 2004. 11. 30(6개월 사용분)

■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 기 준 일 : 2004. 11. 30일 현재 인천광역시 등록

■ 신청기간 : 2005. 1. 10 ~ 2005. 1. 20

■ 신청장소 : 주사무소 소재 군·구 또는 협회

■ 신청시 제출서류 : 시홈페이지(www.incheon.go.kr-항만공항물류국 새소식) 참조
• 보조금지급신청서, 일자별 유류사용내역(주유소 확인 거래명세서 대체), 세금계산서 사본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지급예정일 : 2005년 2월중순 예정

■ 지급내역 공개 및 불법신고센터 운영

- 차주 입금내역 확인 및 불법신고 확인 : 시홈페이지-항만공항물류국
-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 : 시홈페이지-시민불편센터내(☎ 440-3445)
- 유류증빙서류 원본대조 시행(차량 임의선정)

■ 당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구 분	'04. 6월	'04. 7월~11월
경유	100.22원	152.83원
L P G	129.2원	194.7원

■ 톤급별 지급기준액(100%) 및 최대지원 한도액(150%)

구 분	1톤이하(LPG)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건교부기준 월간 유류소모량(ℓ)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6개월간 보조금 기준액(원)	393,280 (501,720)	584,380	891,160	1,279,050	1,555,790	1,762,730	2,482,540
6개월간 보조금 한도액(원)	589,930 (752,590)	876,570	1,336,748	1,918,570	2,333,691	2,644,100	3,723,810

■ 문의전화 : 교통행정과 (☎ 760-7563)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대책

최근 독극물, 올무, 창애등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특히 겨울철 철새도래지등에서 밀렵·밀거래행위가 더욱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군·구와 밀렵감시단이 개별 및 합동으로 겨울철기간('04. 11. 1 ~ '05. 2. 28)동안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생태계보전지역등 생태계우수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하며 보호종의 주요서식지등 밀렵우심지역의 올무, 덫, 창애등 불법엽구, 독극물, 뱀그물등도 수거할계획입니다. 또한 밀렵·밀거래 신고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게는 환경부 및 환경관리청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속결과 총기·올무·창애·독극물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운반·판매한 자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전과 및 군·구 환경위생(관리·녹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중구 환경관리과 (☎ 760-7392)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 상환안내

우리시에서는 도시철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2000년 발행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공채를 아래와 같이 상환할 계획이오니, 공채매입 증서를 소지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한국씨티은행에 상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액 : 일금이백이십사억육천사백만원 (₩ 22,464,000,000)

■ 상환조건 : 연 6%복리, 5년거치 원리금 일시상환

■ 상환대상공채 : '00. 1. 1 ~ '00. 4. 8 기간중 매출된 도시철도공채

■ 원리금 상환일 :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발행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 상환장소 : 한국씨티은행 전 점포

■ 청구시 지참물

- 가. 개인 : 공채매입증서, 주민등록증, 도장
- 나. 법인 : 공채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상환금수령인 주민등록증

■ 원금 및 이자지급 소멸시효 : 상환일로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

■ 기타

- 가. 원리금 수령을 지체한 기간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나. 문의처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기획조정부 (☎ 451-2125)

❖ 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및 행사 안내

◆ 회관 기획공연 ◆

■ 벨라루스 국립극장 발레단 초청 공연 “호두까기 인형”

- 공연일시 : 2004. 12. 31(금) 16:00, 19:30
- 공연장소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주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주관 : (사) 미추홀아트센터
- 입장료 : 50,000원, 40,000원, 30,000원

■ 희망으로 하나되는 2005 신년음악회

- 공연일시 : 2005. 1. 20(목) 19:00
- 공연장소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공연내용
 -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연주회 - 국내 유명 성악가 협연
 - 크로스오버 연주단 등 특별초청 공연 - 시립예술단 공연 등
- 관 람 료 : 무료
- 관람방법
 - 인터넷 예약 600명 (시홈페이지) - 당일 현장 선착순 입장 200명
- 문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운영과 (☎ 420-2716~2717, 2764)

❖ 100%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훈련 2005년도 국비신입생모집

■ 제출서류 및 입학자격

-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2매) • 입학자격 : 15세 이상 취업을 원하는 모든사람

■ 교육생 특전

- 교육훈련비 전액 정부지원 • 원룸식기숙사 및 식사 무료제공
- 매월 교육훈련수당, 교통비 지급 • 국가기술자격취득(필기시험 면제)
- 우수업체 취업 및 사후지도

공 과	주간1년	주간6월	야간6월
컴퓨터응용기계	150	30	30
산업설비	60		30
재료응용	60		
전기제어	90		
전자통신	90		
컴퓨터출판디자인	40		
스크린 인쇄	30		
모델링	25	15	
멀티미디어	40		30

구 분	주간 1년	주야간 6월
원서접수	'05.2.23 까지	'05.3.29까지
면접일시	2.24	3.30
합격발표	2.28	4.1
입학일	3.2	4.4

■ 문의전화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직업전문학교
(☎ 450-0310~14)
vt-incheon.hrdkorea.or.k

❖ 구인업체 및 구직자 무료 취업지원

■ 모집대상 : 신체 건강한 60세이상 남.여

■ 모집직종 : 경비,청소,건물관리,주차관리,기능직 등

■ 모집기간 : 연중 ■ 문의 : 인천광역시노인연합회취업지원센터(☎ 885-3751)

❖ 주부·성인반 정규 중·고등학교학생 모집

■ 입학자격

- 고등학교 : 중학교졸업자 또는 검정고시합격여성
- 중학교 : 초등학교졸업자 또는 검정고시합격여성

■ 제출서류 : 본교 입학원서(최중학교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

■ 전형 : 선착순 모집

■ 특기사항

- 2년으로 정규졸업학력 부여 및 졸업장 수여
- 자유로운 수업시간 선택(오전,오후,야간)
- 전과목을 기초부터 자세히 교육
-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한 승비료 및 교과서대금 전액지원
- 중·고등학교 생활곤란자 학비지원
- 부천·시흥 일부지역 스쿨버스 운행예정
- ※입학상담 : 예화여자중고등학교(☎ 574-3351~4)

❖ 장애인무료컴퓨터교육 안내

■ 개강일 : 2005. 1. 3~1. 28 ■ 교육과목 : 인터넷활용반,사무자동화반

■ 교육시간 : 10:00~12:00 / 14:00~16:00

■ 교육대상자 :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자녀

■ 준비서류 : 장애인수첩,주민등록등본(1),반명함판사진(2)

■ 접수처 :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중구지회(동인천동사무소건물 1층) - 수시접수

■ 문의전화 : ☎ 766-0076

❖ 2005년 설연휴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예매

2005년 1월 6일부터 2005년 설연휴특별수송기간(2/6~2/10)에 대해 고속·시외버스 승차권 특별예매를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의 : 지방공사인천터미널(☎ 430-7315)

❖ 교통안전분담금환급안내

■ 환급신청기간 : 2002. 1. 1 ~ 2006. 12. 31(5년간)

■ 환급신청대상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소유자는 모두(법인포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 환급자 제외

■ 개인별환금액

-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 50에서 최고 5,400원까지
- 자가용자동차소유자 : 최소 400에서 최대 19,200원까지(법인포함)

■ 환급신청방법(반드시 환급대상자 본인 계좌이용 환급신청)

- 인터넷 : bundam.rtsa.or.kr
- 전화 : ARS1588-6117(전국공통)
- 직접방문 : 공단본부 및 각시도지부 총무과(신분증 지참)
※환급신청및문의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인천지부(032-30-6114)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상환안내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동차 등록·이전과 각종 인·허가 및 관급계약 체결하실때에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계십니다. 공채대금은 상·하수도 시설,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되어 우리시의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매입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오니, 공채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할 공채 : 2000. 1. 1 ~ 2000. 12. 31 기간동안 매입하신 공채

■ 상환개시일 : 2005. 1. 1일부터 (매입하신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후 지급)

■ 상환조건 : 년 6% 복리, 5년거치 일시상환

■ 상환은행 • (구) 경기은행 발행분 한미은행 모든 점포
 • 농협발행분 전국 농협 (단위조합 포함) 모든 점포

■ 청구시 지참물

- 개인 : 매입증서, 주민등록증, 도장
- 법인 : 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상환금수령자 주민등록증
※채권등록필증을 가지고 원리금 청구시는 증권예약원 등록인감 지참

■ 기타사항

- 상환금 청구 소멸시효 : 매입하신 날로부터 원금은 15년, 이자는 10년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공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 440-2254)

❖ 2004년 주민자치센터운동을 마감하며...

■ 주민자치센터는 운영 4년째를 맞아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인식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문화, 교양, 취미 등 프로그램 운영에도 상당한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축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행사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주민자치센터의 우수 프로그램운영

- 장애인 종이접기 교실, 민간단체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 노인정 방문 프로그램운영, 자치단체 안내 도우미제 활용
- 시영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어린이 어학교실 운영
- 사랑나눔회(무료급식)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반찬만들어 주기)사업
- 노인 무료진료 프로그램 및 독거노인대상 사랑의 야쿠르트배달
- 사랑의 도시락, 경로당 활용 방학교실 운영 등

■ 아울러 “우리 동네 가꾸기 운동”을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역점추진사업으로 지정하여 중점 정비지역에 대한 집중정화활동 전개 및 집중정비의 날 운영등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그러나 일부 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의 미흡으로 아직까지 공무원 중심으로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문화·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 주민 자율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 운영, 각급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연계망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시민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잔치국수 바자회

동인천큰우물상가번영회(회장:양인종)는 2일 용동큰우물 앞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잔치국수바자회를 개최, 불우이웃과 노인, 노숙자 들에게 잔치국수 등 음식을 대접했으며 판매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에 전달했다.



문화예술인협회 작품전시회

중구문화예술인협회 회원들의 작품전시가 4일 신포동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김홍섭청장을 비롯한 중구문화예술인협회장 오석환 외 회원 63명과 사회단체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



중구직장협의회 일일주점 성료

인천시중구직장협의회(위원장:최광식)는 9일 오후 관내 신포동 옛 동방극장 홀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마련 일일주점을 운영했다.



중구지회 노인대학 졸업식

인천시노인회중구지회는 14일 노인복지회관 3층에서 김홍섭구청장을 비롯한 김기성중구의회의장, 노인회장, 졸업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제2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청소년일일스키캠프 개최

우리구는 17일부터 18일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홍천 소재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2004년 하반기 청소년어울마당 관련 어려운 청소년 일일스키캠프 행사를 실시하였다.

중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보고 *시인_송벽주

국화향기 그윽한 지난 2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중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성대히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공연은 조화로운 하모니와 육감적이고 텔리키트한 음정이 아름답게 표출되어 관중들에게 수준높은 생동감을 주는데 성공한 연주회로 평가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레파토리 구성도 관람자들에게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제1부는 가요, 제2부는 성스럽고은근히 가슴을 여미는 성가를 택했고, 제3부는 영화음악과 건전가요로 단원들과 관객이 호흡을 같이하는 추억과 낭만의 세계로 유도하여 예술문화의 장르로 승화시켜 공감대를 이끌어낸 시도가 적중했다고 봅니다.

관중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적인 음악인의 구성체가 아닌 주부단원들의 소양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연주회를 위해 준비해 온 성과를 충분히 소화시킨 연주회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특별출연 프로그램은 관중들에게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화롭게 진행시킨 심오한 기획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아직은 덜익은 풋과일처럼 음정의 폭과 발성법을 잘 다듬어 내는 노력이 성숙되어갈 때 더 아름다운 음질로 완성되리 라고 믿습니다. 제3부에서는 클래식 음악보다는 흥미를 이끌어 낼 중구의 옛노래로 예를들면 “연안부두” “이 별의인천항구” 등을 삽입시켜 향수를 느끼도록 하여 건전가요만을 고집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했습니다. 음악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본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으로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향수의 기회를 극대화시켜 아름다운 중구구현에 밑거름이 되도록 문화행사의 폭도 넓혀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도록 열정을 다해 수고하신 흥순영 지휘자와 단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음악을 사랑하는 김홍섭중구청장님과 주민이 다같이 손을 잡고 노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든것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05 이웃사랑캠페인”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를 가슴에 달고 있는 당신이 있어 세상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세상을 가꾸어 가는 아름다운 손을 가진 당신은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희망”을 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있어 세상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05 이웃사랑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희망 2005 이웃사랑캠페인

- 모금기간 : 2004. 12. 1 ~ 2005. 1. 31 (2개월간)
- 모금창구 :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 812-6555)
언론사 (인천일보, 기호일보, 경인일보, ICN인천방송, iTV경인방송)
각 시중은행 지점 및 농협, 수협, 우체국
- “희망 2004 이웃돕기캠페인” 참여방법
 - 사랑의 전화 "060-700-1212" (1통화 2,000원)
 - 동(면)사무소를 통해 배포되는 지로용지를 통한 참여
 - “사랑캠페인” (매월 일정액 기부하기 운동)
 - 각 시중은행 “사랑의 계좌”를 통한 성금접수
 - 사랑의 계좌 현황 (예금주 : 인천광역시공동모금회)
국민은행 208-01-0505-298 한미은행 301-52838-257
우리은행 106-155901-13-101 농 협 147-01-182301
 - 타은행의 계좌번호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의료비 부담되십니까?

희귀난치성질환(백혈병, 혈우병, 파킨슨병, 만성신부전증, 각종 암 등)이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관절염, 정신질환 등)등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이나 가족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니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은?

- 가구원 전체 월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 준(월)	441,871원	731,810원	1,006,555원	1,266,108원	1,439,564원	1,624,416원

■ 부양의무자가구의 월별 소득은?

- 부양의무자범위-배우자 및 1촌이내의 혈족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921천원	1,525천원	2,097천원	2,638천원	2,990천원	3,384천원
+(A×1.2)	+(A×1.2)	+(A×1.2)	+(A×1.2)	+(A×1.2)	+(A×1.2)

A : 당해가구의 최저생계비

■ 의료비 지원 혜택은?

-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종으로, 만성질환자는 2종으로 지원
 - 1종은 병·의원 이용시 전액 무료이고, 2종은 보건기관 무료, 의원(투약)1,500원, 입원
 - 진료는 진료비의 15% 부담(단, MRI, 초음파 등 비급여 제외)
 - 비급여중에서 식대의 80% 지원
- 2종은 대불금, 보상금, 상한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대불금 제도 : 본인부담금에 대해 무료로 대불
 - 보상금 제도 :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반환
 - 상한제도 : 매 6개월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전부를 반환

■ 신청절차는?

- 신청자 : 본인 및 친척 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 장소 및 기간 :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준비서류 등 자세한 것은 구청이나 주소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문의전화 : 중구청 보건복지과(☎ 760-7334)

방문간호사업 안내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픈 이웃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하는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몸이 아프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장애인, 독거노인
- 저소득가정 중 가정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방문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방문간호서비스 내용

- 투약 및 검사, 상처 및 욕창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물리치료
영양제, 파스 제공, 전문가정간호사업소 의뢰

■ 문의처 : 통합보건실 (☎ 760-7662)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어울림 카페”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는 이 카페는 장애인들에게 경제활동을 체험토록 하여, 일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남구 주안2동 194-6 인천명품관(구 공무원연금매장) 1층에 25평 규모로 설치, 장애인들이 직접 일반인을 대상으로 음료 및 다과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의 운영을 통하여 얻어지는 모든 수입은 근무하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지급됩니다. 힘든 몸이지만 기쁘게 일하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재할·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만남 및 모임의 장소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예약문의 : 어울림카페(☎ 866-3270)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 식품을 이웃과 함께하는 푸드뱅크를 찾아 주세요



인천광역시에서는 ‘사랑의 식품을 이웃과 함께하는 푸드뱅크’를 연중 운영하고, 『푸드뱅크 1377』전화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푸드뱅크를 이용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온정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드뱅크」란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결식아동·홀로사는 노인·재가 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

■ 기탁 가능식품

구 분	내 용
주식류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밥류, 떡류, 면류, 빵류, 기타 주식류)
부식류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국류, 탕류, 반찬류, 햄·어육제품류, 기타 부식류)
간식류	간식용 식품 (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과일, 건과류, 기타 간식류)
식재료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류, 콩류, 야채류, 생선류, 육류, 해조류, 양념류, 기타 식재료)
기 타	주식·부식·간식·식재료 외의 것 (생활용품 등)

푸드뱅크를 찾아 주세요

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나눔”제도입니다.

■ 「푸드뱅크 1377」이란

일상적(13)적으로 출출(77)할 이웃에게 철철(77) 넘치는 사랑의 식품을 잉여식품의 기탁자나 수요자를 원활하게 연결해 주는 특수전화입니다.

■ 푸드뱅크에 잉여식품을 기탁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려면

- 대량식품 기탁과 시 전역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면 ☎ 891-1377로
- 소량식품 기탁과 지역내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면 「국번없이 1377」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 부터
음식물쓰레기 전면 매립금지로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시
중구전역의 쓰레기는 매립지에 반입금지되어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배출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

일반쓰레기는 일반용쓰레기봉투를 사용



생활폐기물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시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문의전화 : 760-7422

12월은 연말정산의 달 정치자금 기부하시고 절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종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이번달에 정치자금으로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 환급받고도 1만원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 연소득1,000만원인 근로소득(부양가족2명)이라면

- 과세대상소득금액 : 1000만원
 - 기본공제 : 300만원(100만원 3인)
 - 특별공제 : 310만원
 - 의료비 100, 보험료 100, 카드사용 110
 - 과세표준 : 1,000만원-(300만원+310만원)=390만원
 - 소득세 : 390만원 10%=39만원
 - 주민세 : 39만원 10%=39,000원 429,000원의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 만일 정치자금으로 10만원을 기부하시면 이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위와같이 산출된 세금에서 공제 됩니다.
- 소득세 39만원 - 10만원 = 29만원
 - 주민세 29만원×10% = 29,000원 합 319,000원
- ⇒ 429,000원-319,000원=110,000원 이므로 10만원 전액을 환급받고도 1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문의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763-6646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아 듀 2004

제2회 월미 제야의 밤 러닝페스티벌

2004년 12월 31일(금) 밤10시

셔틀버스운행 : 인천역 → 행사장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 장 소 | 월미공원 운동장 (해사고 맞은편)
- 프로그램 |
 - ★ 행사개막 점화식(월미산 정상) ★ 소원지 태우기 ★ 락밴드 공연
 - ★ 가수공연 ★ 어울링 더울링 대동한마당
 - ★ 캠프화이어 점화식 ★ 울림공연 북 퍼포먼스 ★ Remix DJ와 함께
 - ★ 보신각 타종중계
 - ★ 0시 새해맞이 불꽃쇼 ★ 0시 새해출발 달리기 & 걷기
- 문 의 | 032)452-0196~8 누구나 참가 가능
- 주 최 | 인천광역시 중구
- 주 관 | (사) 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
- 후 원 | 인천광역시, 인천일보사,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서부공원사업소, 인천시모범운전자회,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인천해사고등학교



퍼즐도 풀고 상품도 받고

퍼즐문제를 풀고 정답을 기재하신 후 관제엽서나 FAX를 이용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은 2005년 1월호 중구 소식지에 발표됨과 아울러 쓰레기봉투(20L)20매를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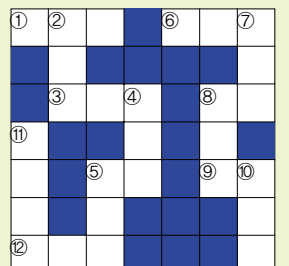
■보내실곳 :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청길100 (우편번호 400-701)

중구청문화공보실 중구소식지담당자앞 (FAX 760-7129)

■접수마감일 : 2005. 1. 14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가로열쇠

- 성인이나 임금이 탄생한 날(크리스마스)
-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소재하는 보문사가 있는 섬
- 비밀한 명령
- 산타클로스가 타고다니는 썰매를 끄는 코가 빨간 사슴
- 서양식 장기
- 그 전 모양으로 회복함
- 사막에서 먼 곳의 물건형상이 지평선 근처로 곧게 혹은 거꾸로 서서 보이는 현상



세로열쇠

- 그 달에 태어난 사람이 행복의 상징으로 삼는 열두달과 관련있는 보석
- 초롱꽃과의 다년생 풀로 뿌리는 먹기도 하고 약으로도 씹, 길경이라고 부름
- 참밀의 가루로 맥분,소맥분,진말이라고도 함
- 예술의 도시 파리가 수도인 유럽국가로 한자로는 불란서로 표기됨
-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입는 옷
- 우는 소리가 크며,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새
- 가는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